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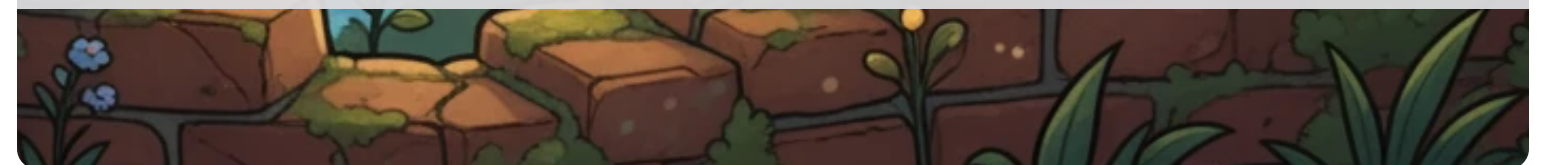
HUMPTY'S GREAT ASCENSION

A TALE OF REBIRTH



After the Fall

경희 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온 험티덤티는 자신의 등에 돌아난 눈부신 황금빛 날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날개를 퍼덕이며 담장 위에서 힘차게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높은 담장이
이제는 발아래 작은 선처럼 보였습니다. 험티덤티는
담장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 높이 솟구쳤습니다.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하얀 구름 속으로 험티덤
티가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촉촉한 구름
의 감촉이 황금빛 깃털 사이사이를 스치며 신비로운
기분을 선사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나오자 끝없이 펼쳐진 세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치는 강물과 초록빛 숲이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처럼 험티덤티의 발밑에 펼쳐졌습니다.



험티덤티는 예전에 너무 높아서 쳐다보기만 해도 무서웠던 거대한 나무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무 꼭대기를 조준했습니다.



그는 아주 가볍고 우아하게 나무의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담장 위에서 떨어질까 봐 떨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용기 있는 새가 된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무 위에서 쉬고 있던 숲속 새들이 낯선 친구 험티덤티를 반갑게 맞이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킴에 화답하며 험티덤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뜻한 우정을 느꼈습니다.



험티덤티와 새 친구들은 다 함께 대열을 맞추어 드넓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황금빛 날개는 무리 중에서도 가장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드는 노을 질 무렵, 험티덤티는 마음속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떨어지는 법이 아니라, 하늘을 자유롭게 유평하는 법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자 험티덤티는 친구들과 함께 나뭇가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멋진 풍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